

五轉六機の變



- 경기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 미, 위스콘신대 대학원 졸업(공공 정책학, MA)
-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 제10회 행정고시 합격
- 경제기획원 대변인
- 세무대학장
- 통계청장
- 재정경제부 차관보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상명대학교 법학과 석좌교수
- (現) 법무법인 주원 고문



鄭 在 龍

I. Arbeiten, Triken und Lieben

M兄으로부터 合格의 消息을 듣고 한걸음으로 중앙청으로 내 달았다.

내눈으로 確認하고 나니 緊張이 풀리면서 一瞬 모든 意思와 感情이 停止되고 마음 이 깊숙이 가라앉는다.

이것을 爲해 大學 卒業後 지금까지 苦心하던 일을 생각하니 어이없는 空笑만이 나 를 휘 감았다.

大學을 入學하고 나니 家庭形便이 기울어 졌으므로 남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Arbeit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기다가 大學에 들어오자 先輩들이 배워준 것이 似而非 「大學의 浪漫」이었다. 大學生活의 半은 이른바 Trinken으로 지새우고 나머지를 공부 좀 하면 考試 合格은 저절로 되는 것인 줄 알았다. 여기서부터 大學生活이 잘못 되기 始作하였다. Arbeit 할라 술 마실라 가끔가다 데이트 할라 率直히 이야기해서 공부할 時間이 없었다.

二學年이 되자 나도 法大生인지라 圖書館 一隅에 나의 固定席을 定해 놓고 每日 가 방으로 하여금 내자리를 지키게 하고 나는 惡童 몇과 어울려 놀러다니라 나의 伴侶이 어야 할 사랑하는 가방을 圖書館에서 홀로 자게도 만들곤 하였다.

이렇게 親舊들 몇이서 作黨을 하여 툼툼이 놀다 보니 講義時間에 들어가는 것 마저 아까워 도서관에 굳게 결심하고 法書を 뒤적거리겠다고 앉아 있으면, 例의 몇 몇이

또 모이게 되어 아예 學校에 공부하러 나오는지 놀러 나오는지 알 수 없는 生活의 連續이었다. 아무튼 2, 3學年 때는 열심히 놀기 위해 學校에 나왔던 같다.

4學年 5月 드디어 우리 7, 8명의 大學生活의 苦樂을 같이 했던 벗들이 모든 방중한 지금까지의 生活을 清算하고 올바른 法大生이 되기 爲해 마지막으로 大川에 가서 마음을 整理하기로 하였다(勿論 이 때도 學校講義時間을 빼 먹고서).

이것이 契機가 되어 그 다음부터 作黨해서 놀더라도 恒常 마음 한 구석에는 善을 向한 마음이 도사리고 앉아 牽制役割을 해 주었다.

이러다 보니 어느 덧 여름 放學이 닥쳐오고 人生을 등지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무엇인가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여름 放學이 내 一生의 轉機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H嬢의 激勵을 받으며 무더위도 아랑곳없이 法大 圖書館에 꼭 쳐 박혀 外務職試驗 準備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도 그 동안 틈틈이 하였던 英語나 獨逸語에는 時間을 節約할 수가 있어 論文科目에 專念할 수가 있어 多幸이었다.

그러나 그 동안 精神의인 安定을 가져다 준 H嬢과의 關係가 원만치 못하여 집에 따라 試驗을 目前에 두고 臨戰에 態勢가 흐트러지게 되었다.

H와의 關係도 整理할 겸 마음의 姿勢를 가다듬기 爲하여 졸업을 얼마 앞둔 겨울 어느 날 삼척에 있는 消源寺로 향했다. 모든 것을 훌훌 털어 버리고……

II. 方向 設定

大學入學時부터 司法試驗에 對한 생각은 別로 없었고, 外交官이 될 생각을 갖고 法大를 志望하였던 것이나 入學하고 보니 外務職 試驗이 없었으므로 한 동안 方向 設定을 못하여 갈팡 질팡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緣由가 되어서인지 體系의인 공부를 하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漠然히 司試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法律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애매한 姿勢로는 結局 4學년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卒業을 1年 앞둔 4學年 3月 初인가 外務職 試驗이 다시 復活되고 M兄의 勸誘가 外務官에 對한 나의 執念을 굳게 하였다.

이때부터 그 동안 조금씩 보아 오던 法律書는 미련을 간직한 채 冊床 한 귀퉁이에서 빛을 잃게 되었다.

外務職으로 方向을 決定하고 나니 마음은 安定을 찾게 되었고 晩時之歎의 感은 있지만, 白紙인 狀態에서 最善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 때부터 지금까지 三年間 나의 受驗生活이 始作되었던 것이다.

지금 돌이켜 보면 좀더 일찍이 方向 設定을 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늦은대로 매우 多幸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III. 外務職에 失敗

4學年 初부터 始作한 外務試驗準備는 卒業 後 五月까지 거의 一年이라는 其間을 그래도 誠實히 하여서 그런지 어느 程度 自身을 갖을 수가 있었다.

一次를 끝내고 二次까지 한달동안 내 나름대로 總整理를 대충 할 수 있었고, 無難히 二次를 치를 수가 있었다.

不安한 대로 웬만큼 期待를 걸었지만 結果는 落榜의 쓴 苦盃를 마시게 되었다.

大學入學後 처음 치는 試驗이었고, 웬만큼 期待를 갖고 있어서 그랬는지 의외로 衝擊이 컸었다.

마침 그 때 三級 行政職試驗이 석달인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親舊들의 勸告도 있고 하여 無理라고 생각하면서도 應試하기로 마음먹고 Y兄과 奉國寺에 들어갔다.

科目을 더해야 한다는 負擔이 있었지만, 奉國寺 2個月間 熱心히 하고 應試하였으나 첫날 行政法에서 完全히 잡치고 나니 나머지 科目은 別 意慾없이 參加하는 것으로 滿足할 수 밖에 없었다. 結果는 豫想테로 였다.

이 때부터 나도 남의 일같이 보아오던 만년 受驗生의 隊列에 끼어 不安하고 쫓기는 灰色의 生活을 하게 되었다.

行政職에 失敗하고 난 후 곧 外務職이 다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準備를 始作하였다.

한번 經驗도 있고 하여 比較的 치밀한 計劃下에 必勝을 다짐하며 公부를 할 수 있었다.

Y兄이 外務職 成績을 알려 주었다.

平均 59.4이고 獨語와 外交史가 나란히 53이고 나머지는 60점을 넘었고, 特히 가장 念慮하던 經濟學이 66.3이었다. 이에 自身을 얻어 學院을 쫓아 다니며 獨語를 補充하며 약 3個月間 總整理를 하고 그 이듬해 外務職에 應試하였다. 이번에는 되겠지 하며 大學院에 들어가기로 마음 먹고 入學試驗까지 치루었는데 몇日 後의 外務職 合格者 名單에 나의 이름은 없었다.

父母님과 親舊들 볼 닳이 없었다. 敗因을 가만히 分析해보니 行政職을 應試 한 것이 잘못이었고 이에 따라 外務職의 要諦인 英語와 獨語의 實力을 充分히 기를 수 없었던 것이라고 判斷되었다. 성적을 알아보니 平均 58.2 자신을 갖었던 經濟學이 의외로 나뻤고 거기에서 처음과 마찬가지로 獨語와 外交史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되니 속 편하게 外交官은 나오는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試驗을 끝으로 外務職에는 安寧을 告해 버렸다.

IV. 苦難의 해

大學院에 籍을 두고 집의 눈치를 보면서 浪人 生活을 하자니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高校同窓과 나에게 期待를 걸던 친척들이었다.

공부를 해도 別로 意慾도 생기지 않고 팔자 타령만 하게 되었다. 그나마 같이 受驗

生活을 하는 親舊들을 만나서 소주 한잔 기울이며 로맨틱(?)하기만 했던 大學生活을 回想하고 呵呵大笑하는 것이 唯一한 樂이었다.

그 동안 잠잠하게만 있던 軍隊에 對한 問題가 나를 괴롭히기 始作했다. 그러나 多幸인지 한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뜻인지 入營 勳狀이 年末로 나와 있었다.

이력 저력 공부를 하는 사이에 가을에 三級行政職 試驗을 應試하게 되었다.

이때는 比較的 오랜 期間을 準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來日에 부풀어 있었다. 餘裕있게 試驗을 치고 C兄과 旅行을 떠났다. 輕率하게도 이번에는 틀림없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다. 一週日동안 氣分을 내고 돌아와 發表를 보니 7인의 합격자 명단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나 自身을 包含해서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꿈꾸는 것 같을 程度로 完全히 妄想에 빠져 있었다.

中央廳 게시관은 나에게서는 痛哭의 壁이 될 수 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行政學이 남들에 뒤질세라 科落이었다. 發表가 나던 다음날 새벽에 가친게서 自動車 事故로 入院하시게 되었다.

철들고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려 보았다. 게다가 1個月 앞으로 勳狀은 나와 있었다.

生活에 對한 危險과 부담할 내 人生을 그려볼 수가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自暴自棄가 되어 入營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3年뒤에 平凡하나 幸福할(?) 小市民의 生活을 그려 보았다.

이렇게 걱정하고 나니 마음은 오히려 淡淡해지고 自身을 合理化시켜려 들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N兄의 간곡한 助言과 집안에 對한 責任感等이 일단 勳狀을 延期시켜 놓고 職場을 갖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機會를 갖기로……. H火藥에 就職을 하였으나 出勤 몇 日前에 大學院에서 指導教授이신 L教授님의 推薦으로 P研究所로 籍을 옮기게 되었다.

研究所인지라 比較的 自由스러웠고 國際法을 맡고 있었으므로 試驗準備에 어느 程度 다른 職場보다는 도움이 되었다. 틈틈히 退勤後 冊을 잡았지만 뜻대로 잘 되지는 않았다. 그저 運에 맡기고 그 동안 해 놓은 공부나 잊지 않도록 조금씩 整理하는 程度였다.

V. 運命의 女神이 微笑짓다.

마침 研究所에서 내가 맡은 일이 國際法이라 大學院을 併行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고 職場을 갖고 있으니 마음은 相當히 安定을 찾을 수가 있었다.

軍隊는 大學院 在學中이었으므로 卒業時까지 延期될 수 있었고 따라서 조금씩이나마 공부를 하면 되었던 것이다.

겨우 昨年까지 해 놓은 것을 대충 훑어보고 應試하게 되었다.

세 과목을 새로 해야 했지만 그렇게 큰 負擔은 되지 않았다.
科落만 免하면 웬만큼 自身을 갖을 수 있을 것 같았다.
1週일에 걸쳐 平凡한대로 試驗을 치루고 나니 기분은 홀가분하였다.
昨年까지 해 놓은 것이 比較的 整理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參考로 이번에 내가 擇했던 과목과 基本書를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憲法은 韓國憲法(文鴻柱)을 基本書로 하고 問題集(朴一慶)으로 補充하면서 主로 全體的인 體系와 基本精神에 關心을 갖고 보았다. 行政法은 行政法學(金道利)으로 뼈대를 세우고 問題集으로 정리를 하였는데 웬만한 內容은 暗記하였다.

行政學은 學校에서 講義를 充實히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장 애를 먹었다.

行政學原論(金圭定著와 朴文玉著)二卷으로 윤곽을 把握하고 行政學大意(朴文玉)로 整理하면서 雜誌에 실린 論文으로 不足한 것을 補充하였다.

經濟學은 經濟原論(金潤煥)을 主된 基本書로 하고 貨幣金融論(李承潤) 國際經濟(李相球) 韓國經濟論(李滿基)等を 精讀하였다. 國際經濟는 外務職試驗에서 選擇科目으로 比較的 整理가 웬만큼 되 있었기 때문에 이번 試驗의 境遇 도움이 많이 되었다.

法大出身들에게는 時事的인 問題에 대비를 위해서나 Economics mind를 갖도록 經濟新聞을 가끔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財政學은 裴福石 教授의 著書와 金命潤著 財政學 2卷으로 相互補充하면서 보았는데 經濟學 實力이 웬만큼 있으면 別로 힘들 것 같지 않을 것 같다.

나는 選擇科目으로 國際法과 社會政策을 하였는데 國際法은 大學院에서 專功科目이라 그런지 제일 無難한 科目이었다. 國際法學(李漢基)을 基本書로 하였으며 崔載勳과 鄭章雲 共著 國際法學이 最近의 資料를 참고 있어 補充하였다.

社會政策은 白昌錫 教授 것을 보았고 時事性이 있는 것은 新聞, 雜誌를 보고 補充하였다. 大體로 基本書의 內容은 비슷하므로 自己의 취향에 따라 選擇하여 繼續 보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나는 主로 基本書로 體系를 세우고 不足한 部分이나 整理하기 困難한 것은 Subnote를 作成함으로써 時間을 節約할 수 있었다. 그리고 完全히 理解가 되면 暗記하여 答案에 그대로 옮겨 놓도록 하였다. 이렇게 공부는 했지만 아직도 確信 비슷하게 갖고 있는 생각은 처음치는 試驗에서 自己의 實力이 最大限으로 發揮한다는 點이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나 나의 경우는 그랬었던 것 같다.

VI. 맺 음

合格의 消息을 듣고 이제는 試驗 때문에 생겼고 그 동안 나를 어지간히도 우울하게 하였던 complex가 解消됐다는 것이 多幸스럽기만 하다.

法大生은 試驗을 지지 않으면 모를가 일단 試驗에 맡을 들어 놓으면 合格할 때까지

는 이 complex가 恒常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다.

三級試驗이나 司法試驗은 단지 職業은 擇하기 爲한 手段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自體로 意味가 있다면 自己生活을 爲하여 靚었을 때 誠實 할수 있다는 것 以上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어려운 살림에도 受驗準備를 하는 데 모든 것은 희생하신 父母님 그리고 누님 동생에게 感謝드리며 무더위에도 受驗準備에 몰두하고 있는 法大親友 그리고 C兄 L兄等 벗들께 그 동안 激勸에 感謝드린다.

지금 受驗準備를 하고 있는 여러분께 좋은 成果가 곧 있기를 빌며 頭序 없는 글을 이만 줄인다.